새 책

▶대중의 봉기(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지음, 정헌주 옮김)='계몽의 변증법'(1947)에서는 현대사회를 대중문화, 대중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대중의 봉기'는 그보다 20년 가까이 앞선 저작이면서 시종일관 대중을 소재로 한 최초의 책이다. 곧 대중의 출현에서 대중의 해부에 이르기까지 대중을 분석하고 있는 선구적인 저작이자 고전으로 꼽힌다. 간디서원. 1만8000원.

▶집이라는 모험(신순화 지음)=집은 어떤 곳일까. 오랜 아파트 생활 동안 마당의 흙냄새를 그리워하고 벽난로가 있는 붉은 벽돌집을 꿈꾸었던 저자는 운명처럼 만난 집에서 12년 동안 살며 마주한 유쾌하고 고단하지만 찬란한 일상을 이 책에서 아름다운 문체로 풀어놓는다. 북하우스. 1만5000원.

▶요가 다녀왔습니다(신경숙 지음)="글쓰기를 위해서 시작한 요가는 뜻밖에 나에게 사람과 사물에 대해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를 지니게 해주었어요."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일상을 다정하게 껴안기. 신경숙 소설가가 요가를 하면서 지내온 잔물결 같은 순간의 기록. 달. 1만4800원.

▶페미니즘으로 다시 쓰는 공주이야기(희연, 일선, 소라 지음)=2021년 이프북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페미니즘으로 옛이야기 다시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보 여성 작가들이 가져온 질문들을 바탕으로 10개월 동안 '인어공주' '서동요' '연이와 버들도령'이 다시 쓰였다. 이프북스. 1만6000원.

▶우리는 그렇지 않아-동물에 대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들(최은규 지음, 지연리 그림)=동물에 대한 편견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자연과학과 입증된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동물의 진짜 모습을 이해함으로써 동물 사랑과 종을 뛰어넘는 공존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생명 존중 이야기. 머스트비. 1만5000원.

▶아시아엔 다 있다!-크고 높고 많고 다양한 아시아의 모든 것(조지욱 지음, 국형원 그림)=아시아의 꼭 알아야 할 역사와 문화를 포함해 최근 동향과 이슈 등 진면목을 소개한다. 1부에서는 아시아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눠 대표 나라들의 면면과 최신 소식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아시아 자랑거리, 음식 등 주제별로 소개한다. 전체 120장이 넘는 사진으로 아시아를 생생하게 반영했다. 사계절. 1만3500원. 조상윤기자

세계에 드리운 공기 재앙 현실 고발

베스 가디너의 '공기 전쟁'

미 저널리스트 환경 보고서
건강한 호흡은 선택의 문제

"지금보다 깨끗한 공기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는 법을 알고 있다."(프롤로그 중)

책 '공기 전쟁'(해나무 펴냄)은 미국의 환경 저널리스트 베스 가디너가 전 세계를 누비며 공기 재앙의 현실을 고발한 현장 보고서다.

저자는 대기오염이 전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직접 들여다본다. 스모그로 희뿌연 영국과 매연으로 뒤덮인 인도, 공기가 씹히는 폴란드, 미세먼지가 내려앉은 중국 등 대륙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목격한 정치적 결정과 경제적 힘이 한데 얽혀 광범위한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모습을 담아낸다.

그리고 더 깨끗한 공기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찾아 그 영웅적인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면서 낙관론의 이유도 발견한다. 그렇게 잿빛 하늘에서 희망적인 미래가 깜빡이고 있음을, 건강한 호흡은 결국 선택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됐다. 1부 '숨을 참고서'에선 대기오염의 폭심지 델리와 런던 곳곳으로 독자를 데려가고, 폴란드의 석탄 이야기도 들려준다.

2부 '한숨 돌리다'에선 미국, 중국, 베를린 등에서 시도하고 노력한 진보와 희망을 찾는다.

저자는 "물론 오염된 장소에도 실천과 진보는 존재하고, 개선되고 있는 장소의 공기도 여전히 더러운 상태"라며 "이 책의 전 지구적인 접근방식이 이 문제의 규모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기회를 모두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다.

저자의 여정은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를 물으며 끝난다. 출판사는 "질문의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이제 필요한 건 나쁜 공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강력한 의지로 세상을 바꾸어나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전한다. 성원 옮김. 1만8500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보통의 삶'을 향한 한 ADHD인의 일상

민바람의 '우아한 또라이로 살겠습니다'

저자는 언뜻 보기에 '조용한 ADHD'인들 중 한 명이었다. 여러 선입견 속에 ADHD(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진단을 받기까지 8년이 걸렸고, 그만큼 현실에 부딪치며 스스로 '사는 요령'을 찾아나갔다.

책 '우아한 또라이로 살겠습니다'(루아크 펴냄)는 민바람 작가가 ADHD를 의심하고 진단받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의 일상은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ADHD 증상들과 씨름하며 '보통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애쓰는 '고통'이 숨어 있다.

작가는 '들어가는 말'에서 "사소해 보이는 고통이 사소하지 않다는 걸 믿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 떠나지 않는 괴로움을 밀어내려고 애쓰다가 점차 괴로움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쳤다. 고통이 나를 이루는 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렇게 발견, 노동, 고통, 세상, 치유라는 주제로 크게 5장으로 구성된 책에 성인 ADHD에 얽힌 경험과 생각을 엮었다.

작가는 내면의 감정을 똑바로 마주하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선다. 그 과정에서 세상과 사람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고통 안에 갇히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들여다보는 '우아함'을 꿈꾼다.

출판사는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그동안 성인 ADHD에 대해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어서 ADHD를 여러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소개한다. 그리고 "병이 가져다주는 불편을 소중히 여기며 '더불어' 살겠다는 마음을 갖기까지 작가가 겪어낸 과정들을 살피다보면 이해를 넘어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다"며 "그 통찰은 읽는 이에게 마음 깊은 위로가 되어준다"고 덧붙인다. 1만7500원. 오은지기자

이 책 가이 크로스비의 '푸드 사피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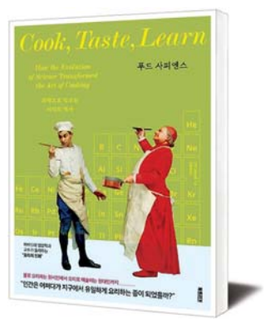
요리·예술·과학의 완벽한 융합

"우리가 음식을 '과학적'으로 요리할수록 심혈관 질환, 뇌졸중, 비만, 제2형 당뇨병, 치매, 각종 암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률도 낮아질 것이다. 요리 과학은 우리 삶의 질과 기쁨을 드높여 줄 것이다."(본문 중)

하버드대 영양학과 교수이자 음식 과학자인 가이 크로스비는 '과학으로 맛보는 미식의 역사'란 부제를 단 책 '푸드 사피엔스'(북트리거 펴냄) 전체에 걸쳐 과학의 발전 역사와 요리가 과학을 통해 현재의 경지에 올라선 과정을 탐색한다.

요리 뒤에 숨겨진 역사와 과학, 예술을 차근차근 톺아보며 인류가 요리로부터 부여받은 영양학적 이점을 발판 삼아 인간으로서의 독자적 길을 개척하는 지점부터 시작해 마지막 책장까지 요리와 과학적 발견의 고리를 끈끈하게 연결해 낸다. 특히 역사·화학·인류학·요리 과학을 통합해 인류의 지난 발자취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과 과학이 통합된 형태로 앞으로의 일상에 자리 잡을 '요리 과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맞이할 미래 요리의 세계를 조망한다.

요리와 과학적 발견의 고리 연결
지난 발자취·미래 요리 세계 조망



출판사는 "이 책은 어려운 과학 주제를 일반인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엄선한 레시피를 통해 과학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며 "요리를 예술과 과학의 완벽한 융합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소개한다.

책은 크게 7장으로 구성됐다. 1장 '요리:더 비기닝'에선 200만~1만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불의 발견이 가져온 요리의 탄생부터 인간이 어쩌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요리하는 종이 되었는지 그 기원을 들여다본다. 이어 5장 '요리 혁명'에선 20세기 이후의 현대 요리법과 더불어 요리를 '덧없는 예술' 혹은 '차가운 과학의 산물'로 봐야 하는 지 등 20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요리를 둘러싼 다양한 시선을 분석한다.

마지막 7장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 요리 과학의 미래'에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좋고 나쁨을 논하고, 앞으로 요리 과학이 어떤 길을 걷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게 될지 살펴본다.

저자는 크림색 바탕을 깐 지면에 짧은 에세이 몇 편을 실어 각 장 본문에서 다룬 과학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각 장의 과학과 긴밀하게 연결된 몇 가지 레시피를 책에 실었다. 오윤성 옮김. 1만8500원. 오은지기자